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승학은 원래 이 고을 읍내에서 살았다. 지금부터 이십 년전만 해도 그는 다 찌그러진 오막살이에서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던 처지였다. 그러던 사람이 오늘은 수백 석 추수를 하고 서울 사는 민판서 집 **사음***까지 얻어서 이 동리로 옮겨 앉은 것이다.

그것은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놀랄 만한 일이었다. 그는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이** 타관에서 떠들어온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 고을에는 그의 일가친척이라고는 먼 서기를 다니는 아우 하나밖에 아무도 없다. 그의 부친은 경기도 죽산이라던가 어디서 호방 노릇을 하던 아전이었던데 승학이가 성년 되기 전에 별세하고 그의 모친도 부친이 돌아간 지 삼 년 만에 마저 세상을 떠났다 한다. 그래서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어린 동생 하나를 데리고 이 고장으로 들어왔다. 이 고을 읍내에는 그의 처가가 사는 터이므로.

인형 소꿉 이고, **안승학**이 주요인물이네요.

처가도 역시 가난하였으나 그래도 처가 끝으로 웅대거리나마 다시 장만해 놓고 살림이라고 떠벌였다.

그런데 그 **무렵**이 마침 **경부선이 개통**한 직후이다. 이 근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차와 정거장과 전봇대를 보고 경이의 눈을 크게 떴다.

안승학은 지금도 그때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먼저 타고 서울을 가 보았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때 그는 어떤 **친구의 심부름**으로 혼수 흥정을 하러 따라간 것이었다.

그의 자만(自慢)은 그것뿐만 아니었다. 그는 경기도 출생이라고 이 지방에서는 제일 똑똑한 체를 하였다.

우편소가 새로 생긴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다. 장승같이 늘어선 전봇대에는 노상 잉-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전신줄을 감은 사기 안에다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무시로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편소 안에는 무슨 이상한 기계를 해 얹히고 거기서는 무시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럴 때에 안승학은 마술사처럼 이 귀신을 부리는 재주를 그들 앞에서 시험해 보였다.

그는 엽서 한 장을 사서 자기 집 통호수와 자기 이름을 쓰고 편지 사연을 써서 우편통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담하기를 이것이 오늘 해전 안에 우리 집으로 들어갈 터이니 가 보자는 것이었다. 과연 그날 저녁때였다. **지옥사자 같은 누렁 옷을 입은 사람**은 안승학의 집에 엽서 한 장을 던지고 갔다. 그것은 아까 써 넣던 그 엽서였다.

“참, 조хват속이다!” 하고 그들은 일시에 소리를 질렀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안승학의 과거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안승학은 **자랑하고 뽐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략)

안승학이는 사랑방에서 혼자 앉아서 금테 안경을 콧잔등에 걸고는 문서질을 하다가 **인동**이를 앞세우고 **김선달 조침지 수동**이 아버지 **희준**이 이렇게 다섯 사람이 일시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적이 마음에 불안을 느꼈다.

그래 그는 붓을 놓고서 마당을 내려다보며 “무슨 일들인가? 식전 댕바람에 내 집예를 이렇게 찾아 오거든 문간에서 주인을 찾고 들어와야지.”

매우 **위엄스럽게** 하는 말이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구보고 말하람니까? 대문 기둥에다 대고 말씀하십시오.”

김선달이 받는 말이다. 저런 쾌짌한 놈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런데 행랑 놈은 어디를 갔기에 문간에 아무도 없었더람! 안승학은 속으로 분해했다.

그러나 호령할 용기는 생기지 않는다. 희준이와 인동이와 김선달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가 앉았다.

조침지와 수동 아버지는 뜰아래서 올라갈까 말까 하는 눈치다.

“하여간 무슨 일들인가?” 안승학은 얼른 이야기나 들어보고 돌려보내자는 계획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댕을 찾아왔을 때는 무슨 별다른 소관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왔다가 코만 떼우고 갔습니다만 대관절 어떻게 저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희준이가 정식으로 말을 꺼냈다. “그따위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이렇게들 식전 아침에 왔어? 못 들어주겠어! 발췌 여러 번째 요구 조건은 들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자꾸 조르기만 하면 될 줄 아는가? 어렵겠지…… 괜히 그러지들 말고 일찍이 나락을 베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할 것이야…….”

안승학이는 긴 장죽에 담배를 한 대 담아 가지고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냥을 세 개비나 허비했지만 잘 붙지 아니하므로 그래 네 번째 불을 댕겨서는 실 새 없이 빠끔빠끔 빨다가 그만 입귀로 붉은 침을 주르르 흘리고서는 제풀에 화가 나서 담뱃대를 탁 밀어 내던진다.

“웬스리 시간만 낭비하고 피차의 물질상 손해만 더 나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잘들 의논해서 오늘부터라도 일을 시작하란 말이야! 나도 아침부터 바쁜 일이 있으니 어서들 가소.”

“그래 정녕코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암!”

- 이기영, 고향 -

* 사음 :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뒷부분은 내용이 좀 있네요.

다섯 인물들이 안승학을 찾아왔고, ‘요구 조건’을 놓고 **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인물들은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고 주장하고, 안승학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16.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인칭 서술**의 특징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 ① 서술 대상에 대한 **독백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제시되고 있다. **3인칭 아니죠?**
- ② 서술 대상에 대한 회고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소설의 상황에서 성찰은 본 적 없습니다. 그냥 안승학이 다섯 사람들과 갈등을 맺은 소설이었어요.
- ③ 서술 대상에 대한 **병렬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선지는 직접 찾으러 가야 해요. 시간 소요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다음 선지부터 보자구요.
- ④ 서술 대상에 대한 **묘사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애도 3번과 같은 상황이네요. 다음 선지 봅시다.
- ⑤ 서술 대상에 대한 **요약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앞 부분 상황이 뭐였죠? **안승학의 고구** 소개였습니다. 이를 생각해볼 때 '요약적 서술'과 '개괄적 제시'라는 말은 맞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과 2는 무조건 틀리고, 5는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면 3과 4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단 5 골라놓고 넘기세요

서술상 특징 문제에 시간 쓸 여유는 없습니다. 뒤에 어떤 어려운 세트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선지 5개는 꼭 읽으시다

지금처럼 정오판단을 끝내지 않은 채 넘기더라도, 안 읽고 넘기는 선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손가락 걸지 말라는 거예요.

17.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작정 [B]로 돌아가지 말고, **상황**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소설은 상황과 맥락을 기준으로 어색한 선지를 찾아야 합니다. 앞 부분은 **안승학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거였어요.

- ①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앞부분 상황이죠.
- ② 새로운 문물이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해야 함**을 알려 주고 있다. 소설의 맥락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있습니다. 안승학이 자랑하는 상황이었지, 사람들의 생활 방식 변화에 대해 주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 ③ 새로운 문물의 이용 방법을 알고 있는 인물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문물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앞부분 상황입니다.
- ④ 새로운 문물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대한 **정서적 충격을** 표현하고 있다. 애도 앞부분 상황이죠.
- ⑤ 새로운 문물에서 신이한 현상을 연상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낯선 문물이 도입될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을 보여 주고 있다. 애도 앞부분이네요.

18. **요구 조건**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번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무조건 '요구 조건' 쪽으로 돌아가서 확인할 필요 없어요. **상황과 맥락**을 근거로 **어색한 선지**를 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색한 선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상황 관계**를 근거로 꼼꼼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상황과 맥락이 최우선이죠. 뒷부분의 상황은 **안승학과 다섯 인물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것이었어요.

- ①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러 온 '김선달'의 '안승학'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표출되고 있다. 상황과 김선달의 캐릭터에 잘 부합하네요. 맞지 않을까요?
- ② '요구 조건'의 이행을 요청하는 '희준'에 대해 '안승학'의 **거부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뒷부분 상황과 일치하네요. 당연히 맞습니다.
- ③ **요구 조건의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을 경고하는 '희준'에 대해 '안승학'이 **염려**하고 있음이 암시되어 있다. 이 선지, 어딘가 어색합니다. 뒷부분 상황이 뭐였죠? **안승학은 요구 조건을 들어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구 조건의 불이행을 염려한다니, 이상합니다.
- ④ '요구 조건'의 수락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안승학'과 '다섯 사람' 간의 **갈등 양상이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맥락 상 당연히 맞는 선지입니다. 요구 조건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갈등이 생겼으니 당연히 긴장된 분위기가 생기겠지요.
- ⑤ '요구 조건'에 대한 확답을 받기 원하는 '다섯 사람'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한 '안승학'의 **심리적인 동요**가 제시되고 있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동요'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틀리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심적인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맞는 말이에요. 다섯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갈등이 생겼으니 당연히 심리적인 동요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1번은 맞는 것 같고, 3번은 어색한데, 2, 4, 5번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지부터 찾으러 갈까요? 당연히 **3번**입니다.

지문으로 가서 확인해보니, 요구 조건의 불이행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네요. 답은 3번입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 <보기>가 중요하지 먼저 봅시다.

— < 보 기 > —

1930년대 리얼리즘 장편 소설에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형이 등장한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근대 문물에 발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소작제와 같은 전근대적 토지 제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근대 문물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지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1930년대 농촌 사회에 등장한 **속물적 인물형**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읽은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네요. **중요한 <보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앞서 잡은 **상황과 맥락**을 기억한 채로, **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 ① ‘지체도 없이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다가 ‘사음까지’ 된 인물의 모습은, 소작제를 이용하여 **지위가 변한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이게 안승학의 캐릭터네요.
- ② ‘경부선이 개통’할 ‘무렵’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여 ‘근본’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던 인물의 모습은, 근대 문물이 유입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변모해 갈 수 있었던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이것도 안승학의 캐릭터입니다.
- ③ ‘친구의 심부름으로’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타 보고서 ‘자만’하는 인물의 행동은, 근대 문물을 경험했다는 점을 앞세워 **자신을 과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또 안승학의 캐릭터인데...
- ④ ‘위엄스럽게’ 하대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정답률이 낮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 선지를 잘못 접근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보자구요.

먼저, **위엄스럽게 하대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감을 드러냈다** 반감은 무조건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했으니, 반감이 있지만 드러낸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이 선지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봅시다. 위엄스럽게 하대한 이유가 뭘까요? 반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감이 있어서 위엄스럽게 하대했는데, 반감이 안 드러날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도 뒷부분 상황이, 안승학과 주변 인물들의 갈등에 대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고려할 때 반감이 드러났다는 것은 무조건 맞습니다.

이 선지가 틀린 진짜 이유는, 인물의 **면모** 때문입니다. 상황, 맥락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인물이 **미 입교 행동을 했** 했는지 말입니다. 안승학이 위엄스럽게 하대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상대방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가 옳은 선지가 되려면, 다음과 같이 고쳐야겠네요.

‘위엄스럽게’ 하대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무건곤을 느끼**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 ⑤ ‘피차의 물질상 손해’를 강조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락을 베풀어 줄 것’을 종용하는 인물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네, 이것도 안승학의 캐릭터네요.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청이 왈,

“나는 이 동네 사람이려니, 우리 부친 앞을 못 봐 ‘공양미 삼백 석을 지성으로 불공하면 눈을 떠 보리라.’ 하되 가난하여 장만할 길이 전혀 없어 내 몸을 팔려 하니 어 떤하뇨?”

백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효성이 지극하나 가련하다.”

하며 허락하고, 즉시 쌀 삼백 석을 몽운사로 보내고,

“금년 삼월 십오 일에 배가 떠난다.”

하고 가거늘 심청이 부친께,

“공양미 삼백 석을 이미 보냈으니 이제는 근심치 마옵소서.”

심봉사 깜짝 놀라,

“너 그 말이 웬 말이냐?”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라마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잠깐 ㉠ 거짓말로 속여 대답하길,

“장승상댁 노부인이 일전에 저를 수양딸로 삼으려 하셨으나 차마 허락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공양미 삼백 석을 주선할 길이 전혀 없어 이 사연을 노부인에게 여쭙즉 쌀 삼백 석을 내어 주시기에 수양딸로 가기로 했나이다.”

하니 심봉사 물색 모르고 이 말 반겨 듣고,

“그렇다면 고맙구나. 그 부인은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르리라. 복이 많겠구나. 저러하기에 그 자제 삼형제가 벼슬길에 나아갔으리라. 그러하나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던 말이 이상하다마는 장승상댁 수양딸로 팔린 거야 관계하라. 언제 가느냐?”

“다음 달 보름에 데려간다 하더이다.”

“어, 그 일 매우 잘 되었다.”

심청이 그날부터 곰곰이 생각하니, 눈 어두운 백발 부친 영영 이별하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나서 십오 세에 죽을 일이 정신이 아득하고 일에도 뜻이 없어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으로 지내더니 다시금 생각하되,

‘옆질러진 물이요, 쏘아 놓은 화살이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

‘이러다간 안 되겠다. 내가 살았을 제 부친 의복 빨래나 하리라.’하고 춘추 의복 상침 겹겹, 하절 의복 한삼 고이 박아지어 들여놓고, 동절 의복 솜을 넣어 보에 짜서 눈에 넣고, 청목으로 갓끈 접어 갓에 달아 벽에 걸고, 망건 꾸며 당줄 달아 걸어 두고, 행선날을 세어 보니 하룻밤이 남은지라. 밤은 깊어 삼경인데 은하수 기울어졌다. 촛불을 대하여 두 무릎 마주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쉬니, 아무리 효녀라도 마음이 온전할쏘나.

‘아버지 버신이나 마지막으로 지으리라.’

하고 바늘에 실을 꿰어 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 눈이 침침, 정신이 아득하여 하염없는 울음이 간장으로조차 솟아나니, 부친이 께까 하여 크게 울지 못하고 흐느끼며 얼굴도 대어 보고 손발도 만져 본다.

고전소설이니, 당연히 전지적 작가 시점일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는 심청이의 캐릭터가 나오네요.

자나깨나 노부인인 것 같습니다.

앞부분 상황은 **백사람으로 속여** 하는 거네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도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략)

황후 반기시사 가까이 입시하라 하시니 상궁이 명을 받아 심봉사의 손을 끌어 별전으로 들어갈 새 심봉사 아무란 줄 모르고 겁을 내어 걸음을 못 이기어 별전에 들어가 계단 아래 섰으니 심 맹인의 얼굴은 몰라볼래라 백발은 소소하고 황후는 삼 년 용궁에서 지냈으니 부친의 얼굴이 가물가물 하여 물으시길,

“처자 있으신가?”

심봉사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연분에 상처하옵고 초칠일이 못 지나서 어미 잃은 딸 하나 있삽더니 눈 어두운 중에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동냥젖을 얻어먹여 근근 길러 내어 점점 자라나니 효행이 출천하여 옛사람을 앞서더니 요망한 중이 와서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오면 눈을 떠서 보리라.’ 하니 신의 여식이 듣고 ‘어찌 아비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하고 달리 마련할 길이 전혀 없어 신도 모르게 남경 선인들에게 삼백 석에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제물이 되었으니 그때 십오 세라,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 자식 팔아 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으니 죽여 주옵소서.”

황후 들으시고 슬피 눈물 흘리시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심에 정녕 부친인 줄은 아시되 부자간 천륜에 어찌 그 말씀이 그치기를 기다리라마는 자연 말을 만들자 하니 그런 것이었다. 그 말씀을 마치자 황후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서 부친을 안고,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어요.”

심봉사 깜짝 놀라,

“이게 웬 말이냐?”

하더니 어찌나 반갑던지 뜻밖에 두 눈에 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두 눈이 활짝 밝았으니, 그 자리 맹인들이 심봉사 눈 뜨는 소리에 일시에 눈들이 ‘희번덕, 짹짹’ 까치 새끼 밥 먹이는 소리 같더니, 못 소경이 천지 세상 보게 되니 맹인에게는 천지 개벽이라.

황후가 심청이였네요.

뒷부분 상황은 **부녀 간의 감동적인 재회**입니다.

- 작자 미상, 「심청전」 -

[A]

3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을 찾으러 가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상황에서 어색한 선지**를 찾는 것이 먼저예요. ㉠ 주변의 상황은, **심청이가 거짓말로서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거였죠.

- ① '심청'과 '벃사람'의 대화 속에서, ㉠으로 **김추려고 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애매하긴 한데, 상황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확인해 보면 확실히 알겠지만, 일단은 맞는 것 같네요. 확인은 선지 5개를 읽고도 어색한 선지가 없어서 **답이 없을 때 한 번에** 하는 겁니다. 시간 없어요. 그러니 다음 선지로 갑시다.
- ② '심청'이 ㉠을 결심할 때 드러나는 생각에서, '심청'이 **불가피하게 ㉠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상황 상 적절합니다.
- ③ ㉠을 전후하여 진행된 '심청'과 '심봉사'의 대화에서, ㉠에 등장하는 인물이 '심봉사'에게 **낮설지 않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저 상황정리 한 줄만 가지고 확인하기는 애매합니다. 세모 치고 다음 선지로 갑시다. 답 안 나오면 확인하는 걸로 해요.
- ④ '심봉사'가 ㉠을 듣고 보인 반응에서, ㉠이 '심봉사'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 상 적절해요. 그런데 이 선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 ⑤ '심봉사'가 ㉠을 듣고 한 말에서, ㉠이 '심청'과 '심봉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됨을 알 수 있다. 갈등? 위 **상황**에서 둘 사이의 갈등이라는 단어는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틀린 선지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오답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답은 대부분 **4번**으로 가요. 그리고 4번 쓴 사람들의 대부분은 **심청**하는 과정에서 틀렸을 겁니다. 제가 문학 바보 시절 이 문제를 헛갈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5번 선지는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상해요. 심봉사와 심청 사이에 갈등이 어떻게 나오니까. 문제는 4번이예요.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4번의 **의심 없이**에 꽂힌 거죠. 그리고 **정말 의심이 없었나?**라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의문이 생겼으니 어떻게 할까요? 확인하러 갔겠죠. 그렇게 지문으로 갔더니, 띠용? **이상하다**라는 말이 있군요. 헉! 이상하다고? 의심이 있는 건가? 답이 5가 아니라 4였네. 큰일 날 뻔 했다!

자, 이 논리에서 무엇이 틀린 걸까요? 제가 지금껏 강조해온 게 뭐였죠? **상황과 맥락**이었습시다. 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윗글의 **일부분 상황**이 뭐죠? 심청이가 **죽도록 배에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생각보다 참담합니다. 자신을 팔겠다고네요. 만약 이 상황에서 심봉사가 심청이를 의심했다면, 저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자기 딸이 팔려간다고 생각했다면, 저렇게 유들유들하게 안 나왔죠. 안절부절 못 하는 모습이라도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즉, **상황과 맥락을 무시한 채 특정 부분에 매몰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제자도 이것을 노리고 문제를 만듭니다. 선지 판단에 있어 **상황과 맥락**이 무조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3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를 찾으러 가는 것보다, 뒷부분의 **상황**으로 어색한 선지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뒷부분의 상황이 뭐죠? **심청이와 심봉사의 갈등 재회**였습니다.

- ① '황후'가 있는 별전에 '심봉사'가 **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두 사람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상황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패스.
- ② '심봉사'에게 **가족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황후'가 '심봉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위 상황을 인지했다면, **답일 수가 없는 선지**일 겁니다. 가족에 관한 질문을 했으니 정체가 확인됐을 거고, 감동의 재회를 했을 거예요. 답입니다.
- ③ '심봉사'가 부인과 일찍 **사별하게 된 이유**를 눈물을 흘리며 언급함으로써 '심봉사'의 기구한 삶이 드러나고 있다. 사별 이유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이 2번인 것 같고, 이걸 확인해봐야 하는 거니 세모 치고 넘갑시다.
- ④ '심봉사'가 딸에게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한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결국 영원히 이별하게 된 과정을 풀어내고 있다. 심봉사가 강요하다니, 이게 둘 사이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심봉사의 **배려**로 거를 수 있는 선지네요.
- ⑤ '심봉사'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차린 '황후'가 '심봉사'의 **말문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딸임을 밝힘**으로써 상봉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 심청이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말을 끊다니요. 애도 **배려**로 거르는 선지네요.

자, 현재 2는 틀릴 수가 없고, 4와 5는 틀렸고, 1과 3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구요? 네, 2번 골라놓고 넘겼다가 시간 남으면 돌아와서 보는 겁니다.

특히나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정연히 있는 선지**가 있어 허무하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학 난이도의 새 역사를 썼던 24 수능에서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골목 안」과 같은 지문에서 이런 선지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선지들은 대체로 뒷 순서에 배치되어, 앞 선지에서 정오 판단으로 시간을 끌게 합니다. 그러니 '적절한 것' 고르기 문제는 모든 선지를 하나하나 보기보다 **가장 맞는 선지를 찾으려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선지 5개는 다 읽어야죠. 안 읽는 선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동일한 <보기>인지** 먼저 봅시다.

— < 보 기 > —

「심청전」은 효의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심청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희생을 선택함으로써 **정작 부친 곁에 남아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심청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다. 그리고 심청의 자기희생의 목적이었던 부친의 **개안(開眼)이 뒤늦게 실현**되는 것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들로 인해 결말은 보다 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조된다.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니 중요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정리하고 갑시다.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효녀로서의 면모**가 부각된다네요.

- ① 심청이 ‘눈 어두운 백발 부친’과의 ‘영영 이별’을 근심하면서도 이를 ‘다시금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결국은 이를 수용하려 함**을 알 수 있군. 이게 <보기>의 내용이죠. 소설 속 상황과도 자연스럽습니다.
- ② 심청이 ‘이러다간 안 되겠다’며 ‘내가 살았을 제’ 할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며 이를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그렇죠.
- ③ 심청이 ‘어찌 아버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효행 그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심청의**의 관점과 소설의 **상황**, 심청의 **캐릭터** 모두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제시한 관점이 뭐였죠? 모순적 상황들을 거쳐 **효녀로서의 면모**가 부각된다네요. 효행보다 모순적 상황이 걱정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청의 캐릭터를 봅시다. 애는 곧 죽어도 **모순적 상황**이라고요. 모순적 상황이 먼저가 아닙니다.
- ④ 심봉사가 ‘자식만 잃었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심봉사는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여 자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상황이랑** 맞네요.
- ⑤ 심봉사가 심청과의 상봉으로 인해 ‘뜻밖에 두 눈’을 뜨게 되는 것으로 보아, **모순적 상황으로 인한 결말의 지연이 극적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보기>의 관점과 부합합니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보기>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 <보기>가 **중요한** **점** **을** **보아야** **죠**.

㉔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주절주절 말이 많은데, **중요한 말이 하나도 없는** 게 포인트입니다. 의미 생성에 대한 부분은 방식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별 **인パクト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음 부분은 더 놀랍습니다. 친화적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소원한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다네요. <보기>에서 특정 부분으로 정해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답니다. 이건 **단편한 말** 아닌가요? 그러니 선지 판단에 쓰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늪들 은 운는다 한다마는

㉔ 어리고 하얗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흐노라

<제1수>

보리밥 풋늪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 곳 뽕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뽕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묻내 도하흐노라

<제3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
흐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냇뚝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샤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흐 일도 아니 맞더
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회라 흐시도다

<제5수>

강산이 도타 흐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프리 갑고자 흐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상황이 단순하네요. 전형적인 고전 운문입니다.

속세가 싫고, 자연이 좋고, 임금이 선이라네요.

-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수필을 읽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파악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24수능 수필이 그랬죠. 잊는 게 병일지 아닐지 인성질을 시전하다 결국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수필이 하고자 하는 말은 너무 명확해요. 잊을 건 잊고, 잊지 말 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만 파악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수필의 핵심은 대체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앞부분부터 공개해버리면 감새지 않겠어요? 그러니 수필의 핵심을 늘 주시하며 집중합니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이게 뭘 말이에요; 어쩌라고** 이런 데에 **너무 시간 쏠지 않시다** 표 그리는 사람들까지 봤어요. 비문학 지문이 아닙니다. 일단 넘기고, 선지에서 확인해야 하면 그 때 다시 보면 돼요. 결론만 잡고 갑시다. 뭐죠? **작은 즐거움이 최고**입니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㉔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아니, 자기가 마음대로 태도의 등급을 나누더니, 자신이 가장 높대요. 이거 뭐죠? 강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필의 핵심은 한줄 요약이 됩니다.

나는 신이네.

- 이덕무, 「우언(迂言)」 -

38.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이 시의 상황을 인지했다면, **행할 수가 없는 선지**입니다. 상황이 뭐였죠? **자연이 너무 좋다** 그러면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경험적 성격과 연결되어 있으니 즐기는 거겠지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은 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시에 공간이 나왔는데, 그것이 관념적 성격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시의 주제와 독립되어 아무 의미도 부여받지 못 해야 합니다. 주제와 의미는 관념적이므로, 조금의 연관성이라도 있다면 관념적 성격과의 연결성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이는 **매번 자연과 나만도 맞은 선지일 겁니다** 답이네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문학 오답률 1위였어요. 이는 **선지가 물어보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여러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었을 때도, **5수에 나온 공간이 왜 관념적이냐**는 질문이 많았다고 공통적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될까요? **선지가 그것을 물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관념적 성격과의 연결성을 물어봤지, 관념적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애는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추상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추상성이 강화되었는지 이종으로 묻고 있기 때문이죠. 1번이 확실하니 일단 넘길게요.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설의적 표현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문 해소에 대한 것도 본 적 없어요.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산림**이랑 아예 안 맞죠.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애도 확인을 해 봐야 알겠어요. 패스입니다.

2와 5는 패스, 3과 4는 틀렸고, 1은 무조건 맞습니다.

답은 1번일 거고, 넘겼다가 시간 남으면 다시 봅시다.

39.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황 정리 확실히 하고 갑시다. **속세가 싫고, 자연이 좋고, 임금이 심**이래요.

①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늬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늬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그냥 속세가 싫다는 얘기**네요.

② '바윗 곳 뭉'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너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1번과 같은 말입니다. 속세가 싫대요.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갑자기? 님과 왜 소원하죠? 위 **심정**을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황, 맥락과 함께 **전맥**을 많이 강조했죠. 님이 와도 이만큼 반갑지 않다고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죠? **자연이 그만큼 좋**는 거예요. 그런데 님이 싫다고 나오는 건 좀... **민심** **안**으로 생각했을 때 사회성이 떨어지는 선지로 보입니다.

④ '님천'에서의 '한홍'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자연이 좋다**는 거죠.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임금이 신**이라는 겁니다.

40.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의 **맥락**이 뭐였죠? **자신이 신**이라는 겁니다. 작은 즐거움을 알 거든요.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맥락**에서 아예 벗어나고 있네요.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왜 조화시키겠어요. 즐거운 건 즐거운 거고,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겁니다.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이는 앞 **산림**을 생각할 때 **당연한 선지**죠.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확인해 봐야 알겠어요 TT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애도...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거가 명리보다 좋은 것 아닐까요? 아마 맞을 겁니다.

1은 틀렸고, 2는 맞고, 3과 4는 확인해 봐야 되고, 5는 맞을 겁니다. 그러니 1 고르고 넘어갑시다. 3과 4 확인해보려면 써가면서 하나하나 대조해야 해요. 시간 남을 때 해도 충분합니다.

41.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 상황은 **속세가 싫고, 자연이 좋고, 임금이 신**인 겁니다.

㉡의 핵심은 **자신이 신**인 거예요.

- ①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문제 회피? **책략**이 틀림입니다.
- ②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성찰해서 과오를 인정? **자신은 신**이예요.
-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반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 깊게 하지 말고 일단 넘기시다.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니 **맞으면 대모**로 가자구요.
-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자신이 신**인데 남의 말을 인용하면 안 되죠!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리고 자연을 즐기는 ㉠이라면 이 선지가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 맞으면 이 선지가 정답이예요.

1, 2, 4는 절대 아니고 3은 아닌 것 같은데
5가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5 확인하러 감시다.
삼공과 만승도 이만큼 좋을 것 같지 않다네요.
5가 맞는 선지였습니다.

42. ㉠을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나)는 **속세가 싫고, 자연이 좋고, 임금이 신**인 겁니다.

(다)는 **자신이 신**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 ①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이 좋대요.**
-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어보는 것이 없는 선지**입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등급을 나뉘었으니 당연히 비교했죠. 이것도 물어보는 것이 딱히 없네요. 맞을 겁니다.
- ④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상황과 잘 어울리는데**, (다)가 **떠용이네요.** **자신이 신**인데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수용하면 안 되죠. 아까 푼 41-④와 같은 논리입니다. **책략**이 틀림로 거르는 선지였습니다.
- 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애도 물어보는 것이 없어요... 당연히 맞는 선지입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시가 조금 난해한 것 같긴 한데, 상황이 너무 명확합니다.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훈련받나봐, 아니야 밧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뉘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열고.

대체 얼마나 한가하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도 상황이 명확해요. **눈은 날 배들을 보며 비웃고 있습니다.**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황 정리 제대로 합시다. **마음에 안 든대요**

-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인식 변화? 그냥 계속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맥락 이탈이에요.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경외감? 아니네요.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모르겠어요. 확인해봐야겠네요. 세모 치고 패스합시다.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중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깨달음이 부정? 아닙니다.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심화**를 고려했을 때 무조건 맞는 선지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도돌이표를 시전했으니, 동일한 구절을 반복해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겠네요.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황이 무엇이었죠? **추운 날 배들을 보며 비웃고 있어요**

-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 관심을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의 계기**가 형성된다. **배들을 보며 비웃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맞는 선지예요.
-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혼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배가 왜 못 움직일까요? **얼마나 추운지** 그랬겠어요... 내부적 원인 아닙니다. **말한 언어**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배가 못 움직이더라!"라고 이야기하면 추위의 문제이지, 배의 결함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사회성이 떨어지는 선지로 보이네요.
아마 **말들**에 꽂히라고 낸 선지인 것 같습니다. '말들'의 문제는 내부적 원인이니깐요. (뇌피셜이에요)
-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비웃는다는 거죠.
-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2번 선지와 정확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외부의 힘이 강조된답니다. 2번은 틀리고 4번은 맞겠네요.
- ⑤ ㉤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4번과 아예 같은 말입니다. 2번이 틀리고 4번과 5번이 맞는 게 확실하네요.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가 중요한지** 먼저 봅시다.

— < 보 기 > —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중요한 <보기>**네요. 이를 잘 인지한 채, <보기>에 집중합시다.

(가) : 언어가 **제 기능을 못 함**,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

(나) : 개인의 **언어 사용 제한을 비판**,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 언급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위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보기>**의 관점에 맞지 않습니다. 이 선지는 자신의 참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참여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보기>에 따르면 자신도 참여하지 못 했습니다.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튀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보기>의 내용과 맞네요.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맛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보기>의 내용입니다.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애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여전히 <보기>의 내용입니다.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주어진 상황과 <보기>를 고려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강물이 언 것은 <보기>의 관점과 잘 부합합니다.